

-고 말다

결국 ~하고 말다 — 원치 않게

바라지 않았던 결과가 일어났음을 나타냅니다. -아/어 버리다는 감정적으로 어느 쪽이든 될 수 있지만, 이 표현은 거의 항상 아쉬움이나 후회를 나타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사	-고 말다	울다 → 울고 말았어요
ㄹ 어간은 ㄹ 유지	-고 말다	만들다 → 만들고 말았어요
주로 쓰는 시제	과거	지고 말았어요
결심	-고 말겠다	합격하고 말겠어요
형용사	불가능	좋고 말다(×)
시제를 붙이지 않음	어간 + 고	울었고 말았어요(×)

■ 언제 쓰나요

동사 어간에 -고 말다를 붙입니다. 모음 규칙이 없고, ㄹ은 유지되며, 시제는 말다에 붙습니다. 대부분 과거형으로 씁니다: 울고 말았어요, 지고 말았어요.

원하지 않았고 막을 수도 없었던 결과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: 참으려고 했는데 울고 말았어요. 그 전에 버티거나 애쓴 과정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한 가지 예외는 의미가 완전히 뒤바뀝니다. 미래의 -겠과 함께 쓰면 결심: 이번에는 꼭 합격하고 말겠어요를 나타냅니다.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꼭 합격하겠다는 뜻입니다. 형태는 같지만 느낌은 정반대이므로 별개의 표현으로 익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.

글이나 강조하는 말에서 주로 씁니다. 일상 대화에서는 -아/어 버리다가 훨씬 흔합니다.

■ 예문

- 1 참으려고 했는데 결국 울고 말았어요.
- 2 열심히 했지만 시험에서 지고 말았어요.
- 3 조심했는데도 접시를 깨고 말았어요.
- 4 비밀을 지키려다가 결국 말하고 말았어요.
- 5 그 회사는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.
- 6 이번에는 꼭 합격하고 말겠어요.

■ 비교

-아/어 버리다

버리다는 후련함도 아쉬움만큼 쉽게 나타낼 수 있지만, -고 말다는 거의 항상 아쉬움이며, 먼저 저항했음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다 해 버렸어요. (끝나서 후련하다) / 지고 말았어요. (아쉽게도 졌다)

-게 되다

-게 되다는 변화를 중립적으로, 때로는 긍정적으로 전합니다. -고 말다는 그 결과를 달갑지 않은 것으로 표현합니다.

한국에서 일하게 됐어요. (일이 잘 풀렸다) / 회사가 문을 닫고 말았어요. (결국 그렇게 되었다)

-고 말겠다

미래형은 의미를 결심으로 뒤집습니다. 시제 변화가 아니라 별개의 표현으로 다루세요.

지고 말았어요. (졌다) / 이기고 말겠어요. (반드시 이기겠다)

■ 주의

- ✗ 결국 울었고 말았어요.
- 결국 울고 말았어요.
- 여기서 -고는 시제를 가지지 않습니다. 과거는 끝의 말다에 붙습니다.
- ✗ 시험에 합격하고 말았어요. — '기쁘게도 합격했다'는 뜻이라면 (×)
- 시험에 합격했어요.
- 고 말다는 결과를 달갑지 않은 것으로 표현합니다. 좋은 소식이라면 일반 과거형을 쓰세요.
- ✗ 날씨가 춥고 말았어요.
- 날씨가 추워지고 말았어요.
- 이 어미는 동작 동사에 붙습니다. 형용사는 먼저 -아/어지다로 변화를 나타내야 합니다.